

# 대학가, '챗 GPT' 활용 이견... 허용 불가 vs 바르게 써야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성행하면서 대학가에서도 수업내 접목, 자기소개서 작성 등 활용 여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표절·대필 등 악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활용법을 익혀 나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서는 챗GPT 수업 내 활용을 두고 학교·교수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챗GPT를 과제 및 시험에 붙여 넣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권 교수는 최근 '대학 현장에서 챗GPT 활용 시 예상되는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해설문을 올린 바 있다. 글에서는 대부분의 학회나 저널의 리뷰어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챗GPT 자동 작성 여부 검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논문의 양



챗 GPT 취업시장까지 영향 학교·교수마다 입장 제각각 "대필 등 학계 악영향 초래" "무조건 금지할 일 아니야"

산, 더 제한된 리뷰 과정을 통해 더 확실한 논문 출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학계의 지속가능성을 약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도 불안전하고 표절의 위험이 있음에도 참고해 왔던 것처럼 챗GPT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하나의 '위키펍'이 될 수 있다"며 "챗GPT가 정해 주는 답으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마 교수는 올해 '미디어 테크놀로지 와 문화' 강의에서 챗GPT를 지도서로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업 평가 방식으로 오픈 챗GPT 시험을 치르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지만, 챗GPT가 주는 답이 정답이 되지 않는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의 노력이 몇 배는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챗GPT의 현장 활용은 이미 현재진행형인 상황으로 대학을 넘어 취업 시

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챗GPT 등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작성한 자소서를 두고 대필인지에 대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자소서를 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챗GPT를 활용하는 사용자들도 긍정적인 활용법을 익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챗GPT의 도움을 받은 과제·자소서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송모(27)씨는 "챗GPT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상황과 어투를 선택해 콘텐츠를 생각하도록 할 수 있어 학습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같은 맥락에서 챗GPT를 과제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그것을 학생 본인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문을 던졌다. 현재로서는 AI의 결과물을 이름만 고쳐서 가져다 쓰는 방식에 불과

하다는 평가다.

언어학과가 많은 한국외대는 챗GPT의 사용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견되는 만큼 챗GPT를 접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앞서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가 등장했을 때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외국어 수업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일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용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대학에 진학한 이모(25)씨도 "챗GPT를 사용해 쓰여진 과제나 논문을 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을 금지시키더라도 사용자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취업 시장에서는 자소서 대필이나 첨삭 등의 사례는 흔하기 때문에 챗GPT 활용하는 방안이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서울시민들 "주민자치회 성과·인지도 부족" "급식종사자 3분의 1, 폐 CT 이상소견"

## 서울시의회 주민자치회 여론조사 응답자 90% "제대로 알지 못 해"

서울시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또한 부족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시민도 상당수였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10일~12월 7일 한국갤럽이 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서울 거주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성과 및 인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해 듣거나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들어봤고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3%밖에 되지 않았다. '들어본 적 없다'는 46.2%로 가장 많았다. '들어는 봤지만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43.5%

로 그 다음이었다.

주민자치회는 동(洞) 단위에 설치된 주민 자치 기관이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거 법령에 따라 실제적인 의사 결정권과 예산 운영권, 관련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 운용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안전·건강·복지·문화·돌봄분야사업의제 발굴·계획 수립과 집행 ▲주민자치회 조직·운영(임원진 및 분과 구성) ▲지역 내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등이 있다.

'현 주민자치회 제도 하에서 주민의 요구가 행정에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가'는 물음에 가장 많은 47.3%의 응답자가 '보통이다'고 답변했다. '반영되고 있다'는 36.7%,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16%였다.

지금의 주민자치회 제도 아래에서 주민행정의 중심이 주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5.2%였다. 이어 '보통이다'(41%), '그렇지 않다'(13.8%) 순이었다.

향후 희망하는 주민자치회의 역할로는 '동 주민센터와 협의 및 업무협력'이 68.8%로 가장 많았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 직접 수행'(16.8%), '동 주민센터 지휘·감독'(9.8%)이 그 다음이었다.

희망하는 형태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 주민의 요구가 행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8%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33.3%,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는 9.8%였다.

시의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 강득구 의원, 정부 후속조치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 CT 검진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이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세에 불과했던 황모씨가 떠날 날임을 상기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 CT 검진을 실시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수 4만2077명 중 1만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났다.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다.

강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 고양시 보도 정비사업 59억 투입

고양시가 걷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다. 시는 올해 59억원을 투입해 어울림로 등 15개소에 보도 정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형화된 보도블록에서 벗어나 평탄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보도블록을 적용해 보도의 안전성과 디자인을 강화하는 이번 보도 정비 사업의 총사업비는 59억 2000만원, 면적은 41,192㎡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서울시 '서울핀테크랩' 입주 기업 모집

서울시는 다음달 2일까지 핀테크랩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핀테크랩은 지난 2018년 4월 영등포구 여의도에 문을 연 창업지원 시설로, 현재 국내 83개사와 해외 3개사를 포함 총 86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시는 작년 한해 입주기업이 728억원 투자유치, 1592억원 매출액 달성, 825

명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핀테크 스타트업이면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핀테크랩 입주기업에 사무실 공간, 아이템 사업화, 투자·마케팅·기술개발 등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6 | 해질 / 18:31

3월 7일 (화) 음력 : 2월 16일

수도권 날씨 6 ~ 1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8, 동두천 4/18, 가평 0/18, 파주 2/16, 서울 6/18, 양평 1/19, 수원 7/17, 평택 4/19, 인천 6/14, 용인 7/17, 백령도 5/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중국 리커창 총리, 퇴임 전 '하늘이 보고 있다' 고별사 /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 반환 협상 난항

▲미국 상원서 외국 기술 제품 금지법... 틱톡 등 포함  
▲미인대회 우승한 태국인 트랜스젠더, 현지 재벌과 결혼 /사진 뉴시스



▲중국 과학기술부, 챗GPT 기술력 고 평가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이달 중 미국서 귀국 의사 /사진 뉴시스